

# “국가·지역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최선”

### 신임 김동근 지역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김동근 법학전문대학원장이 3월 2일자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8개 지역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들의 권익 향상과 협력체제 구축, 우수 법률가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상사법 분야 전문가로 200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기획부처장, 홍보부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원장은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상호 협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자원환경공학 지식으로 환경화학 학술활동 ‘결실’

### 전북대 한요셉 박사, ‘젊은 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한요셉 박사(자원·에너지공학)가 환경독성보건학회 ‘2017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환경독성보건학회는 1985년 창립돼 생태독성, 환경화학, 인체독성, 환경역학 등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는 국내 학술학회이다.

BK21플러스 비재래/순환 자원 인력양성 고급트랙 사업팀 연구 인력인 한 박사는 2013년 전북대 연구교수로 임용돼 자원 활용 및 자원환경공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순환자원 활용과 환경화학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과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는 한 박사가 환경화학 및 노출평가 분야에서 연구 실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해 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정해은 기자



### 윤여용 제일건설 대표이사, 전주시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윤여용 (주)제일건설 대표이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3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윤 대표이사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을 재단에 기탁했다.

윤 대표이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평소 인재양성이 지역의 경쟁력이다 라는 신념으로 우리지역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장학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총 4억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후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전주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는 윤여용 제일건설 대표이사에게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콘서트 나들이 나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주민들의 지역문화프로그램 참여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양경철) 17명과 함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년 新春 흥지민&신유 콘서트’를 관람하며 각종 주민자치사업 및 영농준비에 지친 위원들에 대한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저녁식사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과 관련된 임시회의를 간단히 마친 후 김제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여 흥지민, 신유, 리나 이합의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콘서트를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였다.

양경철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치고 “여러 주민자치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삶의 여유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기라는 의미로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즐겁고 힘이 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신형순 면장은 “영농 준비 등 바쁘신 와중에도 공연에 동참하여 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공연을 즐겁게 봐주시는 모습에 저 또한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문화프로그램 참여의 일환으로 여러 사회단체 및 주민들과 이런 의미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3·1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김제시는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하였다.

이번 위문은 관내 식당에서 이승복 김제시장권한대행과 독립유공자 5명이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해 회상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유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에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사망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이 생존하고 있으며,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구 교원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나라사랑 홍보관을 설치하고 보훈단체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사무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익산 어양동 희망동맹, ‘사랑담은 밑반찬 지원’ 이달부터 추진

익산시 어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방은규)는 관내 홀로세대 10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인 ‘홀로세대 밑반찬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양동 맞춤형복지팀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세대별 방문상담을 한 결과, 독거노인이나 질병, 장애를 가진 혼자 사는 세대는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에 어려움이 많고 밑반찬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2017년 특화사업으로 ‘홀로세대 밑반찬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반찬가게인 오레시피어양점(사장 이동환)과 협약을 맺어, 다양하게 구성된 영양 가득한 밑반찬을 오레시피어양점, 어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밑반찬을 전달하고 식사를 챙기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영희 기자



### 정읍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발대식

정읍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하 수집단)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원과 시비 7억원 등 모두 8억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까지 모두 8개월 여 동안 진행된다.

수집단에는 저소득층과 청·장년층 실업자 등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숯가꾸기 사업 등으로 발생한 임목을 수집해 판매하거나 소의계층에 팔감으로 지원한다.

시 “이 사업을 통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 가꾸기와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모두 모두 50여명이 참여, 7개월 동안 약 128톤의 임산물을 수집한 바 있다.

한편 정읍지역에서는 매년 약 880ha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이용 가능한 많은 산림자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집비용의 과다 소요 등의 이유로 발생량의 10%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원 낭비는 물론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데, 시는 이번 사업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목재를 수집하여 바이오 에너지용 연료나 각종 산업용 원자재로 매각해서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 수익금은 산림 환경 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진안군, NH농협은행 제휴카드 기금 적립금 전달식

진안군은 이항로 군수와 장기요 NH농협 진안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2,300여만원의 기금 전달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이 기금은 지난 2006년 진안군과 NH농협 진안군지부가 협약을 맺고 매년 농협에서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진안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 적립금은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군민을 위해 사용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액은 1억2,900여만원에 이른다.

이항로 군수는 “제휴를 통해 적립된 제휴카드 기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공익기금 조성을 확대해 진안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건협 전북지부, 정신장애인 자립기반 형성 위한 후원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강선규)는 최근 익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동근마을’에 방문해 정신장애인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법영 원장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인식개선을 위해 후원해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에 강선규 본부장은 “정신장애인이 존중받으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북도민의 건강동반자로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언제든지 달려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되겠다.”고 답했다.

김민근 기자

### 무주경찰, 신학기 학교폭력·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무주군 적상초등학교에서 신학기 초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교폭력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아이들의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주변 공동체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영민 서장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어느 때보다 아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울러,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학교장과 담담회를 개최하여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서도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영민 서장은 “아이들이 교통사고 등 제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경찰, 신학기 즐거운 학교 만들기 캠페인

고창경찰서는 교육청(학교), (사)패트롤 맘 고창군지회 회원들과 함께 고창중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2017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멈추GO~, 감자주GO~, 사랑하GO~” 스티커를 수제쿠키와 형광펜에 직접 부착하여 신학기 첫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학교폭력 사전 차단 분위기 조성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울러 고창경찰서는 3~4월을 학교폭력 집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등과 협조해 41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무주경찰, 수사분야 부당처우 특별단속 돌입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사회·경제분야에 잔존해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처우 등 불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삼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사회?경제분야에 잔존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고, 사회 전반에 민연한 부당처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 특별단속 업무 추진하기 위한 자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한 부당처우 근절 단속대상으로는 공정거래를 왜곡한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및 특허,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고용관계에 따른 사회적 약자 상대 폭행?감금?약취유인 행위 등이고, 이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나영민 서장은 “사회적으로 잔존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경찰, 신임경찰관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 예방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는 최근 경찰서 어울마당에서 신임경찰관(3년 미만) 26명을 상대로 10대 주요의무위반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문감사관(경감 이상찬)은, 신임경찰관들에게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의무위반행위가 없는 경찰서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신임경찰관들은 최근 발생한 의무위반 행위 사례들을 경청한 후, 의무위반행위는 곧 경찰의 신뢰를 하락 시키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의무위반행위가 없는 경찰서가 되도록 솔선수범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사**

**김제시** ◇서기관 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보건소장 김형희

◇사무원 승진 ▲지방농촌지도관 고규근

---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60912 전주신문(주) 222-4층 (사노총통)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0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6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84
효진지사 010-8845-98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02-0886	정읍지사 536-3787
	익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6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